

고향을 사랑하는 바다소년들이 뭉쳤다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

울릉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무쌍한 울릉도의 기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시기각각급변하는 파도, 위치마다 달라지는 기상 등 육지와는 너무 다른 날씨 환경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 그래서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다. 아차하는 순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 니까. 울릉도민, 그리고 울릉도 관광객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달려와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애향심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그들,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를 만났다.

글 김수란 사진 오철민,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 제공



사진1.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 구조활동모습

2007년 처음 결성된 구조대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는 2007년 처음 결성됐다. 울릉도와 바다를 사랑하는 울릉도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모여 탄생한 봉사단체다. “30 ~ 50대 사이의 울릉도 청년 25명 정도가 대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前) 구조대장 박일관 대원의 말이다. “울릉도 소방서에는 수난 구조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부재합니다. 물론 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동해 해경 함정이 지원해줍니다만 매 사고 마다 대응할 수는 없죠. 저희 이전에 오래전부터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하시던 ‘돌핀’ 선배님들의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활동 중입니다.”(사진1)

바다를 주 무대로 삼아 활동하는 만큼 특별하고 까다로운 지원자격 요건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 라는 서현진 구조대장의 즉답이 돌아왔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봉사활동이 가능한 열정 넘치는 청년이면 됩니다. 박일관 대원이 서현진 구조대장의 말에 손을 보탰다. “다들 자신의 본업이 있으면서 동시에 구조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 모두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기꺼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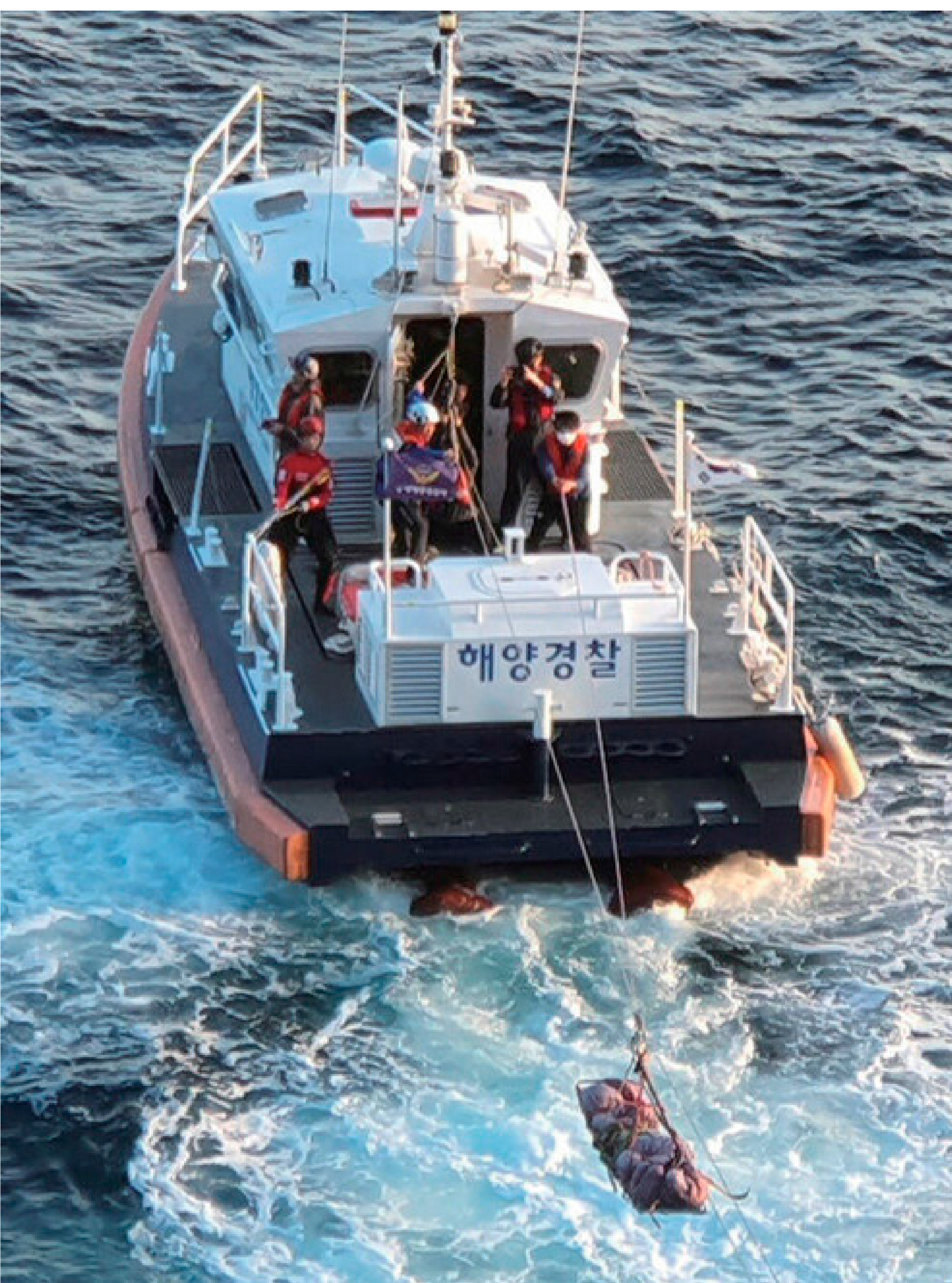


사진2. 해양경찰과의 협동 구조 활동

해난사고 발생은 곧 구조대 출동 의미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라면 이들의 출동은 거의 필연적이다. 해상에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른다. 해난사고 발생으로 소방서, 해경 등에서 이들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구조대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원들이 사고현장으로 즉시 출동한다. (사진2)

대표적인 예가 2009년 1월 발생했던 독도경비대원 실종 수색작업이다. 수색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박일관 대원은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설 명절이었습니다. 당시 그 경비대원은 야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해경은 실족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보고 수색활동을 이틀간이나 펼쳤으나 높은 파도에 애를 먹고 발견하지 못했지요. 꾸준한 독도 해양 정비활동으로 독도 수중 환경에 익숙한 저희 구조대에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마련해준 행정선을 타고 새벽에 출항해 수색 끝에 오전에 시신을 수습해 드렸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던지라 아무래도 잊기 힘들습니다.”



사진3. 수중정화활동

울릉도·독도 청정바다를 책임지다

이름으로 이들의 활동을 막연히 짐작해본다면 수상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앞장서는 것이 주 활동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구조대는 이 외에도 여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수중정화 활동이다. 울릉도 각 어촌계를 돌며 주기적으로 해양 및 수중 쓰레기, 해적생물 퇴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각 마을 어촌계와 잘 협력해 일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정화 활동으로 청정바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나가고 있지요. (사진3)

권오현 대원의 말처럼 울릉도 청정 바다를 가꾸고 지켜나가는데 이들이 기여하는 바는 크다. 폐그물, 각종 생활쓰레기, 인근 횃 집에서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해적 생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불가사리와 성게를 잡는 것이 대표적이죠. 불가사리는 전복 같은 이로운 수산생물의 생육과 번식을 해롭게 하고 성게는 바닷속 을 하얗게 만들어버립니다. 해양생태계 자체를 무너져버리게 만들죠.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울릉도 주민들에게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서 저희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진4. 산악구조 합동훈련

구조역량 강화 위한 끊임없는 노력

구조대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울릉군산악연맹 산악구조대, 해경과 합동으로 인명구조훈련도 받고 있다. (사진4)

사면이 해안 절벽으로 이뤄진 지형의 특징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어떠한 기상 악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추락 및 조난자 구조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구조대의 구조기량을 향상시켜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대원들의 다부진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대규모 합동훈련 외에 도 대원들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필요한 해상 훈련들을 해 나간다. 울릉도에서 살며 독도를 늘 가까이 하는 대원들 이들은 과연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자 권오현 대원이 답했다.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독도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우기니 거기에 맞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대적으로 말하는 것에 더 거부감이 들 때도 있죠. 독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옆에 계속 있었던 우리의 땅일 뿐입니다.”

“독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옆에 계속 있었던 우리의 땅일 뿐입니다.”